

유아의 자유놀이시간과 교사의 역할에 대한 예비유아교사들의 인식: 포토보이스를 중심으로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Perceptions of Young Children's Free Play Time and the Roles of Teachers : Focusing on Photovoice

박진희¹

Jinhee Park¹

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perceptions and roles regarding young children's free play time.

Methods: The study utilized the photovoice method and involved 21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who expressed interest in participating. Participants were enrolled in an infants teaching methodology class in B city. The study involved four virtual meetings conducted via untact teams, and the automatic recordings of these meetings were transcribed for analysis.

Results: The results revealed that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recognized young children's free play time as a period to enjoy full freedom, develop as the main agent of their lives, and express their imagination. Furthermore,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perceived their roles during young children's free play time as a specialist infant observer, a connector between play and learning, and a versatile supporter.

Conclusion/Implications: The findings suggest the need for a systematic curriculum to provide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with a balanced perspective and awareness of the meaning of free play and teacher roles. The study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expanding pre-practice courses for observation of play and field-oriented curriculum for incumbent teachers.

¹ 제1저자(교신저자)

신라대학교 유아교육과 겸임교수
(e-mail : 1009jinhee@hanmail.net)

key words young children's free play time,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 photovoice

I. 서론

유아에게 있어 놀이는 삶의 중심이며 삶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유아들은 놀이를 통해서 세상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나'라는 자아와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동시에 나 아닌 '다른 사람'이라는 타자성의 존재 또한 인식하게 되며,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간다(이정연, 김수영, 2020). 이처럼 누리과정을 비롯한 그간 시행되었던 유치원 교육과정에서도 놀이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오채선, 2018).

정부는 2017년에 발표된 '유아교육 혁신방안'에 따라 교육과정 개편을 통한 유아중심의 교육패

러다임으로의 전환을 강조하였으며(교육부, 2017), 2019 개정누리과정은 ‘유아가 중심이 되고 놀이가 살아나는 교육과정’으로 2020년부터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다. 개정누리과정의 중요한 특성으로는 유아·놀이중심교육의 실현을 위해 교육과정의 대강화, 교사의 자율성 강화의 강조를 들 수 있다. 특히 고시문에서는 교사가 계획하여 제안하는 자유선택활동을 유아가 주도하는 자유놀이로 대체하여 운영할 것, 충분한 놀이시간을 확보할 것 등을 제안하면서 유아·놀이중심교육과정을 재정립하고자 하였다(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제시한 것처럼 본고에서는 자유선택활동을 자유놀리로 대체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유아교육기관의 하루일과는 놀이와 일상생활 그리고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자유놀이는 유아·놀이중심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 자유놀이는 유아의 개별적인 흥미와 요구, 주도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핵심으로(엄은나, 서동미, 2015), 유아 자신의 욕구와 관심에 따라 놀이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활동하는 것으로, 놀이의 요소와 교육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며 놀이와 학습이 동시에 실현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다(Johnson et al., 2004). 이러한 자유놀이시간은 놀이를 통한 유아의 유의미한 배움이 될 수 있도록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때 교사는 다양한 방식으로 유아가 놀이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

2019 개정누리과정에서는 유아가 놀이에서 경험하는 배움을 지원하기 위해 교사의 자율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자율권을 부여받은 교사는 교실 속 놀이 상황에서 어떠한 외부의 간섭 없이 유아에게 적합한 놀이 지원 방법을 스스로 선택하고 여러 상황에 적절한 교육적 판단을 해야 한다. 따라서 유아의 놀이에서 나타난 의미와 그 놀이 상황에서 교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야 하며, 또한 교사는 다양한 관점으로 놀이를 관찰하여 유아의 생각과 의도를 발견하고 이해해야 한다(박진희, 손원경, 2021). 이러한 교사의 관점을 내포한 예비유아교사들의 특정한 경험과 생각을 생생한 목소리로 심도 있게 들여다 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유아의 자유놀이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숲과 자연환경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유놀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곽정인, 나귀옥, 2016; 부은순, 2012; 신지연 등, 2018; 이미애, 박진희, 2017), 자유놀이에 대한 운영 실태와 교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김경희, 김세곤, 2016; 김다정, 2016; 김지영, 2010; 윤은경, 이정수, 2008; 이보람, 2018)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으며 최근 들어 유아의 시각에서 자유놀이를 바라본 연구(박선영, 오채선, 2020; 송지은, 오채선, 2021)와 자유놀이에서 유아교사의 역할을 은유적으로 표현해 보고, 도출된 의미를 분석한(김지영, 윤진주, 2021) 질적 연구도 이루어졌다. 대부분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으며, 자유놀이에 있어서 유아교사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자유놀이 운영실체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올바른 교육 신념과 인식을 바탕으로 적절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대한 교육은 예비유아교사 시기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엄은나, 서동미, 2015)고 하였다. 또한 예비유아교사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나 지식, 태도와 신념 등은 향후 교사로서의 역할 수행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Minot et al., 2002; 김순환 등, 2014에서 재인용).

이처럼 자유놀이에 있어서 유아교사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예비유아교사는 교사

양성과정에서 놀이의 교육적 가치와 놀이 지도 시 교사의 역할에 대해 배우고 이를 현장에 나가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유아교육기관에서 놀이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유아교사의 견해는 교사 자신의 놀이에 대한 개인적 신념과 예비유아교사 시절 받았던 교육에 크게 의존한다(안수영, 2010). 안혜준(2017)의 학교현장실습기관의 자유놀이에 대한 예비유아교사의 인식을 살펴본 연구와 엄은나와 서동미(2015)의 연구가 자유놀이의 의미와 교사의 역할에 관한 예비유아교사의 인식을 탐색한 의미 있는 연구였으나, 지금 현재 2019 개정누리과정을 배우고 있고 앞으로 실행해야 할 예비유아교사들이 생각하는 자유놀이시간의 의미와 교사의 역할을 다시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실행 과정 자체가 교육적 효과를 주는 포토보이스 방법론을 활용하여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유아의 자유놀이시간에 대한 생각과 교사의 역할에 대한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포토보이스 연구 방법은 개인인 연구 참여자가 그들의 삶 속에서 초기 주제에 대한 고민이나 이슈, 문제점 등을 카메라로 촬영한 후 그들의 경험들을 직접 연구자와 공유함과 동시에,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며 궁극적으로 정책 및 사회구조의 변화를 유발시키기 위한 참여적 연구방법이다(Baker & Wang, 2006). Palibroda 등(2009)은 포토보이스가 자신의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말 할 수 있고, 연구자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 참여자들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그들이 속한 공동체를 더욱 발전 시키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든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연구 참여자들이 연구자와 함께 연구과정 내내 적극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고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함으로써 기존의 연구와는 차별성을 갖는다(Whyte et al., 1991, Latz, 2017/2018에서 재인용). 또한 포토보이스는 사진과 목소리의 결합으로 사진의 주관성을 드러내고 그 진실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Latz, 2017/2018). 즉 연구 참여자들의 고유한 경험이나 가치관을 비롯한 주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체현해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이현주, 2015), 연구과정에서 예비유아교사들이 자신의 견해와 관점을 다른 연구 참여자들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다양한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 효율적인 연구방법이라고 판단되었다(김지현, 정혜영, 2020).

최근 유아교육에서 포토보이스를 중심으로 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현직 유아교사의 경험을 통해 놀이 개념을 탐색한 연구(장승희, 손원경, 2018), 어린이집 교사의 행복경험에 관한 연구(이경민 등, 2019), 놀이중심교육과정에 대한 영유아교사들의 인식과 역할에 관한 탐색적 연구(박진희, 손원경, 2021), 영아놀이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의 이해에 관한 연구(이기자, 2021), 포토보이스를 통해 나타난 영유아교사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연구(이옥희 등, 2021), 포토보이스를 활용한 놀이중심교육 운영사례연구(안영혜, 2022) 등 다양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예비유아교사들을 대상으로 놀이에 대한 인식을 탐색한 연구(김지연 등, 2019; 김민지, 2020; 이하정, 2021)가 이루어졌으며, 바깥놀이에 관한 유아교사의 인식과 요구를 알아보는 연구(김우영, 정혜영, 2020)도 이루어졌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를 통해서 볼 때, 현직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며, 영유아들의 발달적 특성으로 인해 교사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다는 점(나정, 2001)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유아교사가 될 예비유아교사 시기부터 누리과정에서 강조하는 자유놀이시간과

교사의 역할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본 연구는 매우 의미있는 연구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자유놀이시간의 의미와 교사의 역할에 대한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가장 구체적이고 효율적이며 사실적이고 진실적 접근이 가능한 시각 매체인 사진을 활용하였다(David, 2010). 이러한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적극적 참여와 실행 과정 자체가 교육적 효과를 가진 포토보이스 연구방법을 통해 개정 누리과정이 실시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유아들의 자유놀이시간에 대한 예비유아교사들의 인식과 역할을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자유놀이시간에 대한 예비유아교사의 생각은 어떠한가?

둘째, 유아의 자유놀이시간에 교사의 역할에 대한 예비유아교사의 생각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 참여자는 부산광역시 소재 4년제 대학의 유아교육과 3학년 재학생들이며, 영유아교수 방법론 수업을 수강한 21명의 학생들을 3조로 구성하여 유아의 자유놀이시간과 교사의 역할에 대한 예비유아교사의 인식에 관한 연구의 목적을 강의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설명을 하였고 수강생 모두가 포토보이스방법을 이용한 수업에 관심과 흥미를 보였으며, 적극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고자 하였다. Polkinghorne(1989)은 5~25명의 개인과 면담하도록 권고하였고, 대체로 포토보이스 연구에서는 7~10명의 연구 참여자가 적절하다는 보고가 있다. 이에 연구자는 수강생 21명의 학생을 3팀으로 구성하여 팀에서 먼저 사진 설명과 제목, 내용의 의미 발표 등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 후 그 팀에서 4개의 사진을 선정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3팀 모두 주제에 관련된 발표를 들으며, 서로 궁금한 점이나 동료의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 등의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3회기 모임을 가졌다.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배경은 <표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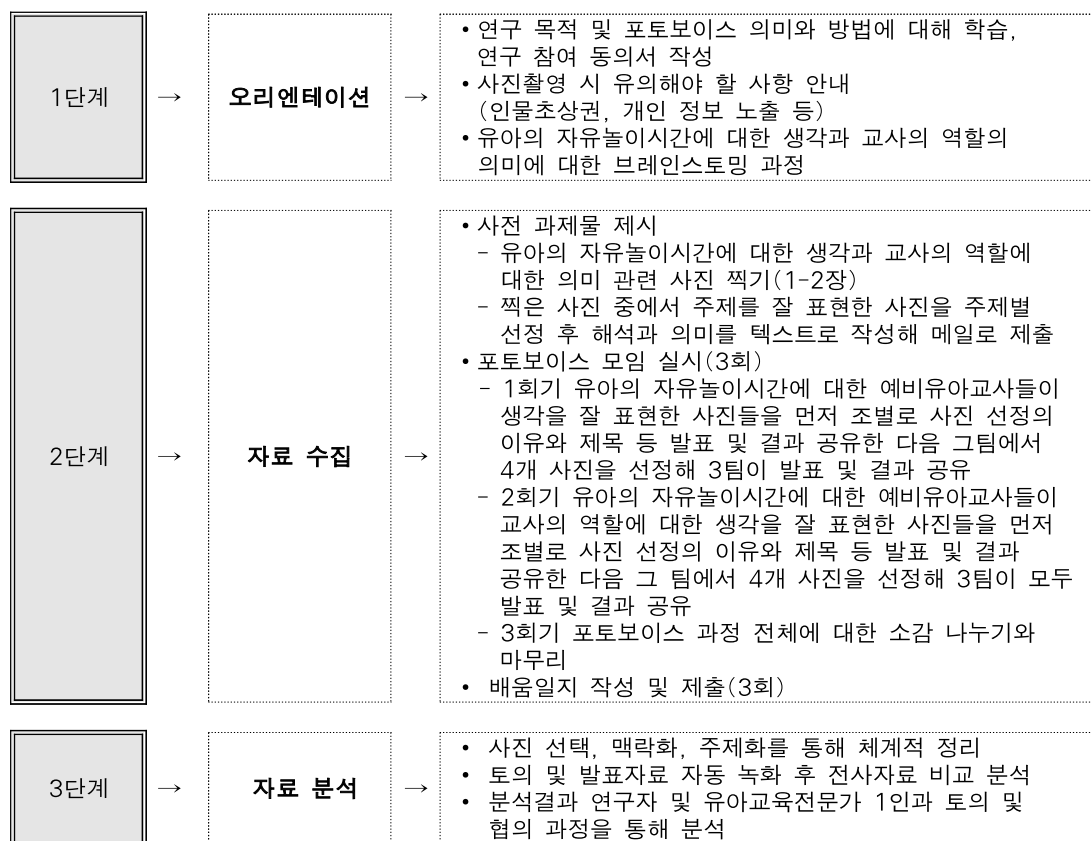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배경

연구참여자	1팀			2팀			3팀		
	나이	학년	연구참여자	나이	학년	연구참여자	나이	학년	
A-1	23	3학년	B-1	23	3학년	C-1	23	3학년	
A-2	23	3학년	B-2	23	3학년	C-2	22	3학년	
A-3	23	3학년	B-3	22	3학년	C-3	22	3학년	
A-4	22	3학년	B-4	22	3학년	C-4	22	3학년	
A-5	22	3학년	B-5	22	3학년	C-5	22	3학년	
A-6	22	3학년	B-6	22	3학년	C-6	22	3학년	
A-7	22	3학년	B-7	22	3학년	C-7	22	3학년	

3.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21년 9월 1일부터 2021년 12월 14일까지 이루어졌다. 연구는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연구를 시작하기 전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포토보이스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통해 연구 목적과 의미, 포토보이스의 개념 및 방법론에 대한 안내와 실제 예시를 통해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며, 연구 참여 동의서는 연구목적과 연구과정에 대한 안내 후, 서면으로 받았다. 연구 참여 동의서 내용에는 코로나 19로 인해 연구가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Teams을 활용해 자동 녹화되는 점과 연구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사진을 찍을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인물초상권, 개인정보노출 등)을 고려해서 촬영하게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주제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한 후 일상에서 주제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장면을 사진 1-2장 촬영하고, 그 중 주제를 가장 잘 표현한 사진과 사진의 제목, 사진의 의미를 설명하는 글을 연구자 메일로 받았다. 특히, 포토보이스 모임이 진행될 때 사진에 대한 설명은 이야기 구성에 사용되는 SHOWeD 기법에 따라 진행되는데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진행하였다. 첫째, 이 사진에서 유아의 자유놀이시간과 관련하여 무엇이 보입니까?(See) 둘째, 이 사진 속에는 유아의 자유놀이시간과 관련하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Happening) 셋째, 이 사진은 우리의 삶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Our) 넷째, 유아의 자유놀이시간에 왜 이런 상황이 존재합니까?(Why) 다섯째, 유아의 자유놀이시간에 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Do) 라는 질문 다섯 가지이다(Wang, 1999, 2006). Teams로 비대면 모임을 3회를 실시한 후 자동 녹화된 영상을 보면서 전사하였다. 또한 연구진행과정에서 참여자가 준비한 사진 중 각 주제를 가장 잘 표현한 사진을 선정해 이에 대한 사진 제목과 촬영한 이유를 적은 글(A4 42장), Teams로 비대면 모임을 3회 실시한 후 녹화된 영상자료를 전사한 자료(A4 63장), 배움일지자료(A4 62장)는 1회기 모임을 하고 난 후 1.무엇을 배웠는가?, 2.포토보이스 첫 경험에 대한 소감은? 3.이런 학습활동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가? 4.유아의 자유놀이시간을 한 줄로 표현한다면? 로 구성해 제공해 배움일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2회기 모임과 3회기 모임을 실시한 후에도 무엇을 배웠는가?, 유아의 자유놀이시간에 교사의 역할을 한 줄로 표현한다면? 유아의 자유놀이시간에 교사의 역할에 대해 발표자들이 공통으로 인식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포토보이스를 통한 수업 경험에 대해 느낀점을 쓰시오로 구성해 배움일지를 작성하게 하여 그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참여자가 보낸 사진을 보며 포토보이스 모임이 진행되었으며, 사진은 총 42장의 사진을 바탕으로 결과분석이 이루어졌다. 42장의 사진 중 일부만 본 논문에 실었다. 이때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선정한 사진을 통해 무엇을 발견했는지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이야기하고, 다른 참여자들과 서로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포토보이스 모임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포토보이스 연구의 실행과정은 <표 2>와 같다.

표 2. 포토보이스 연구의



4. 자료 분석

포토보이스 연구의 자료 분석은 연구 참여자가 선정한 사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체이기에, 사진의 주제와 설명한 글은 연구 참여자가 표현한 것을 그대로 정리하여 사용하였다(이재희 등, 2012). 수집된 모든 자료에 대한 포토보이스 분석방법(Wang & Burris, 1997)은 촬영된 사진 중 해당하는 각 주제를 더 잘 표현한 사진을 선택(selecting)하는 단계와 선정된 사진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를 구성하는 맥락화(contextualizing)의 단계를 거쳐 그 결과에 대해 연구문제별로 구분하여 주제화하기(codifying or categorizing)의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사진 선택(selecting) 단계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각 주제별로 촬영한 1-2장의 사진 중 해당하는 주제에 가장 적합하게 표현한 사진을 선정하여 사진의 제목과 사진 선정의 이유 등을 설명하는 글을 이메일로 제출하였다. 두 번째 맥락화(contextualizing) 단계에서는 주제에 따라 연구 참여자들이 선정한 사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발견하고, 토의과정을 전사한 자료를 검토하면서 내용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주제화하기(codifying or categorizing) 단계에서는 맥락화 단계에

서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와 유아교육과에 3년의 강의경력과 11년의 현장경력, 박사학위 소지자인 유아교육전문가 1인이 개인별로 전사 자료와 사진의 제목, 사진을 선정한 이유를 적은 글, 배움일지자료를 여러 번 반복하여 읽은 후, 서로의 의견을 논의하여 각 단계의 주제와 연결시키는 협의과정을 통해 분석이 이루어졌다.

Wang(1999)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포토보이스 연구 분석 프로세스의 진실성과 정당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주제 분석법을 근거로 이루어진 연구자와 유아교육전문가가 함께 4회의 협의과정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연구자 및 유아교육전문가와 협의과정

횟수	내용
1회	자료 분석 단계에 따라 연구자와 유아교육전문가 1인이 개인별로 전사 자료와 사진의 제목, 선정한 이유를 적은 글, 배움일지 등의 자료를 여러 번 반복하여 읽은 후, 주제 찾기를 위한 협의 과정이 이루어졌다.
2회	1회 모임에서는 도출된 주제를 유사한 내용끼리 묶어서 정리하고 다시 재검토과정을 거쳐 연구문제별 1차 하위주제를 각각 도출하였다.
3회	2회 모임에서도 도출된 주제들을 계속적으로 비교·검토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주제들과 구별되는 주제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최종 주제로 명명화하는 과정이 이루어졌다.
4회	최종 주제와 관련된 사진을 보면서 대화내용의 의미 진술이 맞는지 읽어보고, 최종 재검토하는 과정이 이루어졌다.

Latz와 Mulvihill(2017)은 연구 윤리성을 위해 사진과 관련 문서에 대해 동의서를 받아야 하고, Palibroda 등(2009)은 연구를 시작할 때 연구 참여자에게 포토보이스의 과정과 참여과정의 장점이 나 다양한 책임과 역할에 관해 교육해야 함은 당연하고 혹시 모를 위험부담도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 윤리성 확보를 위해 연구를 시작할 때 연구 참여자에게 포토보이스 연구방법을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흥미와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고, 연구 참여자의 모든 자료는 연구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안내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와 이름이 노출되지 않도록 모두 고유명사로 처리하였다. 연구문제에 대한 1,2차 하위주제 내용은 아래의 <표 4>와 같다.

표 4. 1, 2차 하위주제 결과표

연구 문제	1차 하위주제	2차 하위주제
자유놀이시간	자유롭게 놀이하는 시간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는 시간 자유로운 놀이를 마음껏 펼치는 시간	자유를 마음껏 즐기는 시간
	자신을 표현하는 무대 주인공 자신의 특성을 드러내는 시간 유아 자신을 비추는 시간 자신의 매력을 뽐내는 시간	삶의 주체로 성장하는 시간
	뭐든지 만들 수 있는 공장 유아들이 만든 '책도서관' 메뉴판	상상력이 발현되는 시간
자유놀이시간에 서의 교사의 역할	갈림길 전체를 보면서 필요시 지원하는 교사 적절한 타이밍에 지원하는 교사 눈으로 순간 포착 포인트를 잡는 교사	유아 전문 관찰자로서의 역할
	사다리 역할을 하는 교사 보조바퀴 같은 교사	놀이와 배움의 연결자로서의 역할
	여러 기능을 탑재한 시로봇 self 주유소 직원의 역할 쇼호스트 역할	다재다능한 지원자로서의 역할

Ⅲ. 연구결과 및 해석

1. 자유놀이시간

1) 자유를 마음껏 즐기는 시간

본 연구에 참여한 예비유아교사들은 유아의 자유놀이시간이 유아 자신에게 적합한 놀이를 스스로 찾아 자유로운 놀이를 마음껏 펼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알고, 유아가 자유놀이시간을 통해 자유를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사진 1〉
바다



〈사진 2〉
마스크(자유)



〈사진 3〉
나비

<사진 1> 유아의 자유놀이란 푸른‘바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다를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드넓고 자유로운 공간의 이미지입니다. 자유놀이 또한 자유로움, 허용적, 유아 주도적 등의 단어들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바다와 닮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바다에는 파충류, 포유류, 어류, 무척추동물, 바닷새까지 수많은 바다 생물들이 공존하며, 그들은 먹이를 잡는 방식부터 새끼 또는 알을 낳는 방식, 살아가는 모든 과정과 죽음까지 각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생물들이 바다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모습은 개별 요구와 흥미가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유아들이 한 교실에서 자유롭게 놀이하는 모습과 닮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B-1예비유아교사의 1회기 모임, 2021년 10월 27일 >

<사진 2> 유아의 자유놀이는 유아가 스스로 선택하는 놀이를 이야기하며, 제한되지 않고, 특별한 목적이 없어도,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자발적으로 마음껏 하며,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아의 자유놀이를 요즘 저희가 끼고 있는 ‘마스크’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스크라는 것의 특징을 알아본다면, 특정시기(코로나)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본다면, 다른 연령보다 유아기에 놀이가 꼭 필요한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마스크에는 다양한 종류의 색과 크기, 메이커 등이 있으며, 사람마다 선택을 하는 것이 다 다른 것을 볼 수 있으며,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처럼, 유아의 놀이에 있어서도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이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A-4예비유아교사의 1회기 모임, 2021년 10월 27일>

<사진 3> 유아의 자유놀이시간은 말 그대로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놀이 시간에 유아들은 주변의 놀잇감이나 환경으로 다양한 놀이를 자발적으로 만들어 갑니다. 물론 자유놀이시간에 쉬거나 자고 싶어서 놀이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유아도 있습니다. 또한 놀이를 하며 혼자만의 갈등이나 주변으로부터 갈등을 만나기도 하고, 없길 바라지만 위험한 상황도 존재합니다. <중략> 이와 같은 맥락에서 유아의 자유놀이시간은 ‘나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비는 자유롭게 날며 세상과 마음껏 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이름이 모두 다른 것처럼 나비도 같은 나비라 해도 모양이 약간씩 다르고 나비마다 특징이 다릅니다. 이처럼 유아도 놀이에서 흥미, 요구, 놀이 방법 등 개인마다 모두 다릅니다. 유아는 자신에게 적합한 놀이를 스스로 찾아 자유로운 놀이를 마음껏 펼치기 때문에 유아의 자유놀이시간은 ‘나비’라고 생각했습니다.

<A-3예비유아교사의 1회기 모임, 2021년 10월 27일>

위의 사례들에서 드러나듯이 예비유아교사들은 자유놀이시간에 같은 놀이 환경에서도 유아들이 각각 하고 싶은 놀이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유아 스스로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시간으로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끼는 시간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임부연 등(2008)의 연구 결과처럼 유아가 요구하거나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개입하지 않는 비구조적 자유놀이

환경에서 유아들은 스스로 놀이 의미를 만들고 즐거움을 최대화하는 놀이능력을 보여 주었다는 결과와 맥을 함께 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놀이, 즐거운 만족감 그리고 자유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놀이 상황 안에서 모든 선택과 결정의 자유가 유아에게 주어졌음을 의미한다. 즉 놀이가 자유 그 자체라고 주장한 하위징아의 표현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놀이에서는 무한한 자유가 허용되어야 한다(임수진 등, 2019)는 것이다. 따라서 유아의 자유놀이시간에는 유아가 자유를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해야 하며, 같은 놀이 환경에서도 유아들이 각자 하고 싶은 것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스스로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함을 시사받을 수 있다.

2) 삶의 주체로 성장하는 시간

본 연구에 참여한 예비유아교사들은 유아들이 자유놀이라는 무대에서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는 무대의 주인공이 되어 자신과의 마주침을 통해 삶의 주체로서 성장하는 시간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유아들은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세상과 교감하며 성장해 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박진희, 손원경, 2021)는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으며, 김경철과 정혜승(2019)의 예비유아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자유놀이에서 유아들이 놀이를 통해 탐구하고 활동하면서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사진 4〉
무대 주인공



〈사진 5〉
다양한 향수



〈사진 6〉
무지개(특색있는 조화로움)

<사진 4> 제가 생각하는 유아의 자유놀이는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무대’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아들은 자유놀이를 통해 자신의 경험이나 상상, 또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놀이로 표현하게 되는데, 이러한 모습이 저는 무대의 특성과 닮아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무대의 모양부터 구성까지 다양한 형태의 무대들이 존재하고 있듯이 유아의 자유놀이 또한 각기 다 다른 이야기나 경험들이 자유놀이에 녹아져있고, 또 다른 놀잇감들을 통해 이를 표현하는 것들이 무대와 비슷하다고 느껴졌습니다.

<B-7예비유아교사의 1회기 모임, 2021년 10월 27일 >

<사진 5> 제가 생각하는 유아의 자유놀이는 개개인의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유아는 책상에서 병뚜껑 쳐내기 놀이를 하고 또 다른 유아는 그림을 그리고 색칠하면서 놀이를 하거나 딱지를 접으며 놀이하는 유아, 조작영역에 있는 보드게임

을 하며 놀이하는 유아 등 다양하게 자유놀이가 진행되는 모습을 보육실습 중에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보아 자유놀이시간은 유아가 놀이를 진행한다는 큰 틀은 같지만, 유아의 특성에 따라 놀이의 내용이나 진행이 달라짐을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한 향수 또한 향기가 난다는 것은 공통적인 부분이지만, 향수마다 각자 다른 향을 지니고 있고 특징이 있는 것처럼 유아도 자신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는 시간을 자유놀이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C-2예비유아교사의 1회기 모임, 2021년 10월 27일 >

<사진 6> 비가 갠 후 맑은 하늘에 무지개가 떠 있는 것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기해하며 미소를 짓는 경우가 많고, 또 웬지 모르게 행운이 찾아올 것 같다는 예감이 들기도 합니다. 저에게도 무지개란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존재이자 현상입니다. 무지개는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 7가지의 다른 색이 각각의 개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조화롭게 그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놀이시간의 유아들과도 비슷합니다. 유아들은 각자 노는 방식과 좋아하는 놀이, 하고 싶은 놀이가 달라 자유놀이시간 모습을 볼 때면 개개인의 개성을 만연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중략> 개개인으로도 충분히 예쁘지만, 함께 있을 때 또 다른 모습으로 자신의 매력을 뽐내는 유아들의 모습을 잘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자유놀이시간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B-3예비유아교사의 1회기 모임, 2021년 10월 27일 >



<사진 7>

유아 자신을 비추는 시간



<사진 8>

건강한 영양소

<사진 7> 자유놀이시간에 유아가 펼치는 놀이는 현재 유아가 가진 관심, 학습 정도, 또래 및 환경과의 상호작용 등 다양한 면들을 투영하여 교사에게 알려준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자유놀이시간이란 유아 그 자체를 비춰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비유아교사인 우리 모두 그 시간의 중요성을 알고, 유아가 자유놀이 시간을 통해 온전히 자신을 드러낼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B-5예비유아교사의 1회기 모임, 2021년 10월 27일 >

<사진 8> 내가 생각하는 유아의 자유놀이시간에 대해서 ‘흙’ 사진을 선정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흙은 모든 생물들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식물의 싹을 틔우고, 모든 생물들

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영양분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흙 속에는 수많은 미생물들과 여러 생물들이 작용하여 이로운 물질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유아들에게 놀이란 삶 그 자체이면서 필수적이고, 놀이하는 과정에서 배움이 일어나는 것처럼, 유아들이 자유놀이시간에서 혼자 놀이하거나 친구들과 서로 상호작용을 해가면서 자유롭게 놀이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놀이가 유아들에게 좋은 영양분으로 작용하여 유아의 삶이 풍부해지고, 유아의 삶을 건강하게 일궈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아의 놀이가 흙처럼 유아에게 이로운 영양분을 제공하여 유아의 삶의 모든 부분에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움으로써 유아의 발달 영역에 골고루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어서 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되어서 내가 생각하는 유아의 자유놀이로 ‘흙’ 사진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B-4예비유아교사의 1회기 모임, 2021년 10월 27일 >

위의 사례들에서 드러나듯이 예비유아교사들은 자유놀이시간의 유아는 놀이에서 자신만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시간이며, 자신의 매력을 뽐내는 시간 즉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는 무대의 주인공이 되어 자신과의 마주침을 통해 삶의 주체로서 성장하는 시간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자유놀이시간이 흙처럼 유아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시간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유놀이시간에 유아들은 진정한 삶의 주체로 성장하는 시간을 경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상상력이 발현되는 시간

본 연구에 참여한 예비유아교사들은 유아들의 자유놀이시간은 상상력이 발현되는 시간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유아는 스스로 호기심을 가지고 주변 세계를 탐색하고 탐구하면서 재미있는 상상을 하고, 이를 통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놀이를 변형하고 창조하면서 창의성을 기르게 될 뿐 아니라 주변과 관계를 맺으며 경험하고 배움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사진 9>

뒤틀지 만들 수 있는 공장



<사진 10>

유아들이 만든 ‘맥도서관’ 메뉴판

<사진 9> 유아들의 자유놀이는 상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아는 스스로 호기심을 가지고 주변 세계를 탐색하고 탐구하면서 재미있는 상상을 해 나갑니다. 이를 통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놀이를 변형하고 창조하면서 창의성을 기르게 되죠. 사진에서 유아는 자유놀이시간에 뒤틀지 만들 수 있는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공룡만 만드는 공장이었지만 나중에는

작은 동물도 만들어 내고 자동차도 만들어 내는 뭐든지 만들 수 있는 공장으로 변신했습니다. 한정적인 공간에서도 기존의 교구들로 자유놀이를 진행하는데 단순한 놀이를 하기도 하지만 유아의 상상력으로 새로운 놀이가 탄생합니다. 또 아무런 놀잇감이 없더라도 상상만으로 놀이가 만들어지는 것처럼요.

<B-6예비유아교사의 1회기 모임, 2021년 10월 27일 >

<사진 10> 유아의 자유놀이는 ‘상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아는 자유놀이시간에 자신이 하고 싶은 놀이를 하게 됩니다. <중략> 위 사진은 어린이집 보육실습을 나갔을 당시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한 유아가 맥도날드와 도서관을 합친 “맥도서관”의 메뉴판을 만들며 시작되었습니다. 유아는 “맥도서관은 맥도날드와 도서관을 합친거야, 햄버거도 팔고, 책도 읽을 수 있어”라고 말하며 맥도서관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한 유아가 “그러면 우리 맥도서관 메뉴판을 만들어보자”라고 이야기 합니다. <중략>이렇듯 유아는 맥도날드와 도서관을 합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상상하지 못한 것들을 상상하고 자유롭게 놀이하면서 자신들의 생각을 펼쳐나가기도 하였습니다. 즉, 자유놀이를 통해 유아들의 상상력이 발현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루일과 중 자유놀이시간을 조금씩 늘려 유아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들을 자유놀이시간에 마음껏 표현하고, 유아 자신들의 무한한 상상력을 표출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A-2예비유아교사의 1회기 모임, 2021년 10월 27일 >

위의 사례들에서 드러나듯이 예비유아교사들은 유아들의 자유놀이시간이 놀이를 변형하고 창조하면서 유아 자신만의 방식으로 상상력이 발현되는 시간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유아는 호기심을 가지고 주변 세계를 탐색하며 재미있는 상상을 해나가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놀이를 변형하고 창조하면서 창의성을 기른다는 개정 누리과정에서 강조하는 내용과 같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유아들이 주도적으로 놀이를 만들어가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변형하여 놀이하러 자유놀이는 유아들의 집중과 몰입뿐만 아니라 창의력과 상상력이 신장될 것이다 (나귀옥, 광정인, 2013)라는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유아들이 자유놀이시간에 충분히 몰입해 놀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여 상상력과 창의력을 신장시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해야함을 시사받을 수 있었다.

2. 유아의 자유놀이 시간에서의 교사의 역할

1) 유아 전문 관찰자로서의 역할

본 연구에 참여한 예비유아교사들은 유아의 자유놀이시간에 교사의 역할은 유아 전문 관찰자로 표현하고 있었다. 유아 전문 관찰자는 유아의 발달, 관심, 흥미, 요구를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관찰해 유아들이 요청할 때 지원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즉 교사는 유아의 놀이를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관찰’이라고 인식하였으며, 이는 유아의 놀이는 상

황에 따라 다양하게 일어나며, 예측하기가 어려우므로 유아의 놀이를 세심하고 민감하게 관찰하면서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박진희와 손원경(2021)의 연구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교사가 진정한 놀이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실행하기 위해 먼저 유능한 놀이 관찰자가 되어야 한다(엄정애, 2004)는 연구와도 맥을 같이 함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사진 11> 유아들의 자유놀이시간에는 혼자 놀이하는 유아도 있고 친구와 함께 놀이하는 유아도 있는데 전체가 같은 놀이를 하는 일은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사는 전체 유아의 놀이를 관찰하면서 개별적이고 부분적으로 적절한 놀이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중략> 교사의 역할은 전체적으로 관찰하고 살펴며 유아들이 어떤 방향으로 놀이하는지, 정해진 방법 외 새로운 방법으로도 놀이하는지, 안전하게 놀이하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고 개별적, 부분적으로 유아가 가는 길을 더 재밌고 풍부하게 만들어준다거나 새로운 길을 개척해갈 수 있게 용기를 준다거나 안전한 길로 갈 수 있게 안내를 해주는 등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는 놀이 시간의 전체를 볼 수 있는 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5예비유아교사의 2회기 모임, 2021년 11월 8일 >

<사진 12> 내가 생각하는 유아의 자유놀이시간에 교사의 역할이란 적절한 때에 추가하여 음식의 맛을 돋우고 풍부하게 해주는 조미료의 역할과 같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조미료는 음식의 맛이 부족하거나 아쉽다고 느껴질 때쯤 적절한 타이밍에 첨가하여 음식의 맛을 살리고 풍부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교사 또한 유아의 자유 놀이를 관찰하며 최대한 개입하지 않고 유아가 필요로 할 때 개입을 해 주어 유아의 자유놀이가 더욱 몰입하고 풍부해지며, 놀이가 더 잘 살아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중략>

<B-4예비유아교사의 2회기 모임, 2021년 11월 8일 >

<사진 13> 자유놀이에서의 교사의 역할이 카메라와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남는 건 사진뿐이라는 말이 있듯이 즐거운 추억이나 과거의 기억은 사진과 함께 회상하곤 합니다. 잊어버릴 뻔했던 기억들도 사진을 보면 바로 떠오르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유아들의 자유놀이도 카메라로 사진 찍듯 교사의 눈으로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성장하는 유아들의 놀이과정을 기록하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입니다. 교사는 유아의 관심의 흐름에 따라 의미를 읽어내고 순간 순간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하며 유아의 요구에 맞게 적절한 도움을 제공해주는 놀이지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더불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유아들의 변화를 기록하고 배움을 읽어내는 것 또한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C-4예비유아교사의 2회기 모임, 2021년 11월 8일 >

위의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예비유아교사들은 유아들의 자유놀이시간에 전체를 볼 수 있는 시선이 필요하며, 아이들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끊임없이 관찰하며 최대한 개입하지 않고 유아가 필요로 할 때 적절한 타이밍에 지원하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C-4예비유아교사는 아이의 놀이 순간을 포착해 가지고 기억하고 얼마나 성장했는지 봐주는 게 교사의 역할이라며 공감하고 가장 인상 깊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따라서 교사는 유아들의 놀이를 체계적으로 관찰함으로써 개별 유아의 발달상황과 유아들의 놀이욕구, 교사의 개입이 필요한 시점과 개입수준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며(안혜준, 2017), 만약 관찰이 선행되지 않은 채 교사가 유아들의 놀이에 지나친 개입을 할 경우에는 유아들의 놀이 흐름에 방해가 되어 나쁜 개입이 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유아의 놀이에 적절한 개입을 찾는 실천이 요구된다(서혜정, 김은영, 2012; Frost et al., 2001). 이를 위해 교원양성기관에서는 현직 교사가 직접 놀이개입에 관한 맞춤형 연수의 필요성과 현장 밀착형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안혜준, 2017).

2) 놀이와 배움의 연결자로서의 역할

본 연구에 참여한 예비유아교사들은 유아의 자유놀이시간에 관찰을 통하여 유아의 현재 발달 수준과 잠재적 발달 수준을 잘 알고 적절한 비계를 설정해 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즉 유아들의 놀이를 배움으로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는 유아가 필요로 하는 학습에 대한 도움을 주는 비계설정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류미향, 2022)고 볼 수 있다.



<사진 14>
사다리



<사진 15>
네발 자전거의보조바퀴

<사진 14> 사다리에 비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놀이시간에 유아는 각 영역의 놀이를 통해 경험을 얻고 지식을 구성합니다. 교사는 유아를 위해 적절한 환경과 재료 등을 제공

하고, 놀이에서 유아와 환경이 상호작용을 일으켜 유아가 스스로 지식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사의 역할이란 관찰을 통하여 적절한 비계를 설정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사가 유아의 잠재력을 발견하는 과정은 사다리처럼 유아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끈다고 생각합니다.

<B-2예비유아교사의 2회기 모임, 2021년 11월 8일 >

<사진 15> 유아의 자유놀이시간에 교사의 역할도 자전거의 보조바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는 유아들이 자유놀이시간을 인식하고 자유롭게 놀이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그 안에서 많은 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유아가 자유롭게 자유놀이시간을 즐기고 다양한 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옆에서 지켜봐주는 역할을 하다가 유아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는 각 유아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놀이 시간에 교사의 역할이 자전거 보조바퀴와 같다고 생각해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C-7예비유아교사의 2회기 모임, 2021년 11월 8일 >

위의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예비유아교사들은 유아들의 놀이가 배움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비계설정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유아의 놀이하는 과정에서 배움이 일어나도록 환경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유아들이 놀이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교사가 유아의 놀이를 따라가면서 유아가 놀이에서 무엇을 배우고 경험하는지, 어떻게 놀이하고 배우는지, 그리고 놀이를 어떻게 만들고 이어가는지를 이해하는(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 교육적 행동으로 교사의 놀이역량과 전문성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다재다능한 지원자로서의 역할

본 연구에 참여한 예비유아교사들은 유아의 자유놀이시간에 교사의 역할을 한 가지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역할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사진 16>

여러 가지 기능을 탑재한 시로봇



<사진 17>

self 주유소 직원



<사진 18>

쇼호스트 역할

<사진 16> 저는 유아의 자유놀이시간에 교사의 역할이 여러 기능을 탑재한 AI 로봇과 비슷하고 생각합니다. 요즘 AI 로봇은 씨씨티비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대화의 상대가 되어주기도 하며 체온이나 온도를 알려주기도 하는 등 여러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형적인 모습에서 벗어난 장난감과 같은 다양하고 독특한 디자인의 AI 로봇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특징들이 자유놀이시간 교사의 역할과 닮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사는 자유놀이시간에 유아와 상호작용하며 함께 놀이에 참여하는 놀이자의 역할도 필요하고, 유아의 안전을 고려하며 유아들을 지켜보는 감독자의 역할도 필요하며 더 나아가 유아의 놀이의 흐름을 기록하고 확장시켜주는 기록자 및 지원자의 역할 등의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B-7예비유아교사의 2회기 모임, 2021년 11월 8일 >

<사진 17> 제가 실습을 하며 느꼈던 자유놀이시간의 교사는 정말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기관에는 한 반에 10명 이상의 유아들이 있습니다. 이때, 교사는 유아들을 위해 정말 다양한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유아들의 자유놀이를 지켜보며, (1) 유아들이 다치지 않는지 안전을 살펴야 하며, (2) 유아들의 놀이 속에서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고, 놀이를 더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지원에는 교사의 발화만으로도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물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3) 유아들이 자유놀이 중간에 싸우게 된다면 중재를 해야 하며, 놀이에 끼지 못하고 혼자 놀이를 하면 같이 놀이를 하거나 그것을 유심히 관찰하여 놀이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는 self 주유소의 직원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self 주유소가 늘어나며 주요소에서 일하는 사람의 수는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self 주유소라고 하더라도 일하는 직원은 꼭 있으며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중략>

<A-4예비유아교사의 2회기 모임, 2021년 11월 8일 >

<사진 18> 저는 유아의 자유놀이시간에 교사는 쇼호스트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합니다. 쇼호스트는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조사뿐만 아니라 시장동향과 개인의 소비심리에 대해 연구하며 쇼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 구상합니다. 자유놀이시간 속 교사도 마찬가지로 유아들이 어떠한 놀이에 관심을 보이는지 관찰을 하며 유아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후 어떠한 놀이 지원을 해주면 유아들의 놀이가 확장되고 지속될지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중략>자유놀이시간도 마찬가지로 교사가 새롭게 제공한 놀잇감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유아가 있다면 교사는 시범보이기를 통해 유아들의 이해를 돕고, 놀이를 촉진시켜나갑니다. 결국 구매주체는 소비자이듯이, 자유놀이시간 속 주체도 교사(쇼호스트)가 아닌 유아(구매자)가 됩니다. 그 놀이를 지속할지 중단할지의 여부도 유아가 결정하게 되고, 어떤 주제에 관심을 가지게 될지도 유아들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교사는 이 과정 속에서 유아들의 관심사 동향을 파악하고 이후 놀이 지원 계획을 세우고, 유아(소비자)와 서로 쌍방향적인 상호작용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쇼호스트 역할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C-3교사의 2회기 모임, 2021년 11월 8일 >

위의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예비유아교사들은 유아의 자유놀이시간에 교사가 하나의 역할이 아닌 자유놀이시간에 유아와 상호작용하며 함께 놀이에 참여하는 공동 놀이자의 역할도 필요하며 유아의 안전을 고려하며 유아들을 지켜보는 감독자의 역할도 필요하고, 더 나아가 유아의 놀이의 흐름을 기록하고 확장시켜주는 기록자의 역할 등의 다양한 역할을 복합적으로 행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지원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김지영과 윤진주(2021)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자유놀이를 위해 교사는 사전에 놀이자료와 공간을 구성하고, 자유놀이 중에는 관찰자 개입, 상호작용, 감독자, 평가자 등의 다면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교사가 유아의 놀이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때, 유아는 놀이를 통해 자발적이고 통합적인 학습과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들을 대상으로 포토보이스 방법을 활용하여 유아의 자유놀이시간에 대한 인식과 역할의 의미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연구결과 예비유아교사들은 유아의 자유놀이시간이 자유를 마음껏 즐기는 시간, 삶의 주체로 성장하는 시간, 상상력이 발현되는 시간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자유놀이시간에 교사의 역할은 유아 전문 관찰자로서의 역할, 놀이와 배움의 연결자로서의 역할, 다재다능한 지원자로서의 역할로 인식하고 있었다. 연구문제에 따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유아교사들은 유아의 자유놀이시간이 자유를 마음껏 즐기는 시간, 삶의 주체로 성장하는 시간, 상상력이 발현되는 시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유아들은 교사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적 놀이가 아닌 자발적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놀이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낄 때 진짜의 놀이라고 인지한다(김수영 등, 2020)는 연구결과처럼 유아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여 놀이하였을 때 그 놀이가 진짜 놀이가 된다는 것을 알고 유아들이 자유놀이시간에 진짜놀이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해줘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유아의 자유놀이시간은 유아들이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며 이를 최대한 보장해줌으로써 유아 자신과의 진정한 마주침을 통해 삶의 주체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예비유아교사들의 인식은 개정 누리과정에서 강조하는 바와 같이 유아가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자료와 공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능동적으로 탐색하고, 유아 자신의 삶 속에서 놀이 경험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즐거움을 느끼면서 몰입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의미있는 배움과 성장을 이루어진다고 강조하는 것(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이 개정 누리과정이 추구하는 방향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자유놀이에서 만남을 체험하며 새로운 존재로 용기있게 변화한 준우의 사례(송지은, 오채선, 2021)연구와도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예비유아교사는 유아들이 놀이를 통해 유아 자신과의 마주침에 포착하고 주목함으로써 유아들의 움직임과 행위를 알아차리고(김지현, 정혜영, 2020), 유아들

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집중과 몰입해 놀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공간을 제공해야함을 시사받을 수 있다.

둘째, 예비유아교사들은 유아의 자유놀이시간에 교사의 역할은 유아 전문 관찰자로서의 역할, 놀이와 배움의 연결자로서의 역할, 다재다능한 지원자로서의 역할로 인식하고 있었다. 유아의 놀이는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일어나므로, 예측하기 어렵고, 교사가 유아의 놀이를 통한 배움으로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상황에 적합한 판단을 해야 한다(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고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예비유아교사에게도 놀이 관찰 시간에 유아의 놀이를 통한 배움으로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서는 유아의 생각과 흥미, 관심을 우선적으로 존중하고 지원할 수 있는 관찰의 힘을 기를 수 있는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결과는 관찰이 유아들의 놀이상황에서 교육적 순간(Van Manen, 1994)을 포착하고 적절한 지원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주장과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예비유아교사들은 유아의 흥미, 관심, 발달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관찰을 중요시하였으며, 특히 유아가 도움을 요청할 때, 유아가 요구할 때 즉각적인 놀이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유아 전문 관찰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이를 위해 예비유아교사 양성기관에서는 예비유아교사 자신도 다양한 놀이의 유형을 경험하고, 유아의 놀이 속 맥락을 이해하는 관찰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현직교사와 연계한 수업방식을 통해 실제 사례를 통한 놀이 맥락 이해하기와 놀이관찰 후 지원 방법 등의 직접적인 예비유아교사교육이 필요함을 시사받을 수 있다.

또한 예비유아교사들은 자유놀이시간에 관찰을 통하여 유아들의 놀이가 배움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비계설정자로서의 역할과 자유놀이시간에 교사의 역할은 한가지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역할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지원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놀이가 배움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놀이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의미 있는 상황을 발견해내고, 놀이가 확장되어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적절한 물리적, 언어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경기도 교육청, 2018)고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김지영과 윤진주(2021)은 유아의 자유놀이에서 교사는 다면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유아의 놀이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할 때, 유아들은 놀이를 통해 통합적이고 자발적인 학습과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결국, 예비유아교사들이 인식한 교사의 역할은 유아들의 자유놀이시간에 유아들의 놀이에 주의 깊게 관찰하며 적절한 순간에 그 놀이가 배움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다재다능한 지원자로서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예비유아교사들이 유아의 자유놀이시간에 교사의 역할을 잘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며, 매우 의미 있는 결과이다. 또한 예비유아교사들은 참여적 실행 연구방법인 포토보이스 수업방법을 통해 유아의 자유놀이시간의 의미와 교사의 역할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자신의 생각과 견해를 다른 연구 참여자들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한층 더 성장할 기회가 되었고, 교육신념과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이들이 유아교사로 성장하였을 때 자유놀이시간에 유아들의 놀이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놀이가 배움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다재다능한 지원으로 실천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이상의 논의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유아·놀이중심교육과정 개편을 통한 자유놀이에 대한 관점

이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예비유아교사들이 생각하는 자유놀이시간의 의미와 교사의 역할에 대해 참여적 실험연구 방법인 포토보이스방법을 통해 그들 자신만의 교육적 신념을 정립하는데 효과적이었다는 점에 의의를 가진다. 또한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특정지역의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으며, 추후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지역과 통합적 연구방법을 통한 예비유아교사들의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경기도교육청 (2018). **놀이 2018, 유아교육 놀이로 풀다**. 경기도교육청.
- 곽정인, 나귀옥 (2016). 유아의 위험성 감수놀이를 위한 실외환경의 특성. **열린유아교육연구**, 21(4), 429-455.
- 교육부 (2017). 공공성 강화를 통한 유아교육 혁신 방안. 교육부.
- 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 **2019 개정누리교육과정 해설서**. 교육부, 보건복지부.
- 김경철, 정혜승 (2019). 자유선택활동 구성에 참여한 예비유아교사들의 경험 이야기.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9(4), 239-248. <https://doi.org/10.35873/ajmahs.2019.9.4.024>
- 김경희, 김세곤 (2016). 유아교육기관의 자유선택활동에 대한 운영 실태 및 교사인식. **교육연구**, 1(1), 77-97.
- 김다정 (2016). 유치원 자유선택활동 운영 실태 및 교사의 역할에 관한 인식.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민지 (2020). 포토보이스를 활용한 예비유아교사의 놀이에 대한 인식 탐색.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수영, 김수임, 정정희 (2020). **놀이지도**. 양서원.
- 김순환, 남옥선, 박선희 (2014). 인성교육에 대한 예비유아교사의 인식 조사 -3,4년제 유아교육과 학생을 대상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19(1), 363-391.
- 김우영, 정혜영 (2020). 바깥놀이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과 요구: 포토보이스를 활용하여. **학습자 중심교과교육연구**, 20(12), 789-817. <https://doi.org/10.22251/jlcci.2020.20.12.789>
- 김지연, 박영림, 이신희 (2019). UCC 제작과정에서 나타난 예비 유아교사의 '놀이' 인식의 변화: 포토보이스를 활용하여. 한국유아교육학회 춘계정기학술대회 자료집, 131-134.
- 김지영 (2010). 보육교사의 전문성 발달과 자유선택활동 운영과의 관계. **아동교육**, 19(2), 39-55.
- 김지영, 윤진주 (2021). 자유놀이에서 유아교사의 역할에 대한 은유적 탐구. **인문사회21**, 12(3), 113-126. <https://doi.org/10.22143/HSS21.12.3.9>
- 김지현, 정혜영 (2020). 유아교사가 경험한 교수매체의 의미 탐구: 포토보이스를 중심으로. **어린이 교육비평**, 10(2), 89-126. <https://doi.org/10.26834/ksceice.2020.10.2.89>
- 나귀옥, 곽정인 (2013). 자연적 공간의 자유놀이에 나타난 창조와 변형.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0(3), 249-280.

- 나정 (2001). 유아교육의 기능 변화와 교원양성 정책·양성체제와 양성과정 정책을 중심으로. **교육이론과 실천**, 11(2), 71-95.
- 류미향 (2022). 구성주의 교육이론의 이해와 실천. 창지사.
- 박선영, 오채선 (2020). 유아의 자유놀이 다시 바라보기. **유아교육연구**, 40(6), 39-60. <https://doi.org/10.18023/kjece.2020.40.6.002>
- 박진희, 손원경 (2021). 포토보이스 방법을 활용한 놀이중심교육과정에 대한 영유아교사들의 인식과 역할에 관한 탐색적 연구. **아동과 권리**, 25(1), 1-29. <https://doi.org/10.21459/kccr.2021.25.1.1>
- 부은순 (2012). 숲에서 자유놀이가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혜정, 김은영 (2012). 자유선택활동시간에 교사 역할을 찾아가는 현장연구. **유아교육학논집**, 16(5), 163-188.
- 송지은, 오채선 (2021). 자유놀이에서 만남 체험을 통한 유아의 ‘존재 되어가기’ 탐구. **열린유아교육연구**, 26(4), 243-270. <https://doi.org/10.20437/KOAECE26-4-10>
- 신지연, 정민정, 서원경 (2018). 숲 자유놀이와 실내자유선택활동에서의 유아의 인지사회적 놀이 행동 비교. **유아교육학논집**, 22(6), 197-222. <https://doi.org/10.32349/ECERR.2018.12.22.6.197>
- 안수영 (2010. 11). 한국 예비교사들이 구성하는 놀이의 의미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육아지원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 논문, 서울.
- 안영혜. (2022). 포토보이스를 활용한 놀이중심교육 운영사례연구. **인문사회21**, 13(5), 1329-1344. <https://doi.org/10.22143/HSS21.13.5.93>
- 안혜준 (2017). 학교현장실습기관의 자유선택활동에 대한 예비유아교사의 인식. **유아교육학논집**, 21(4), 33-58.
- 엄은나, 서동미 (2015). 자유선택활동의 의미와 교사의 역할에 대한 예비유아교사의 인식,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1), 101-128. <https://doi.org/10.14698/jkce.2015.11.101>
- 엄정애 (2004). 놀이와 교육과정 연계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인식과 현황. **유아교육연구**, 24(1), 145-164.
- 오채선 (2018). 자율성으로 본 유아교육과정 재설계. **유아교육연구**, 38(4), 415-443. <https://doi.org/10.18023/kjece.2018.38.4.017>
- 윤은경, 이정수 (2008). 자유선택활동에 대한 어린이집 교사의 인식 및 운영실태, **아동복지연구**, 6(2), 19-41.
- 이경민, 윤혜경, 임미정 (2019). 포토보이스를 활용한 어린이집 교사의 행복경험에 관한 연구. **아동교육**, 11(1), 19-40. <https://doi.org/10.17643/KJCE.2019.28.2.08>
- 이기자 (2021). 영아놀이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의 이해: 포토보이스를 중심으로. 동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미애, 박진희 (2017). 숲에서 자유놀이를 통한 유아들의 회복탄력성 경험에 대한 의미. **열린부모교육연구**, 9(4), 253-272.
- 이보람 (2018). 유아교육기관의 자유선택활동 운영 실태와 교사의 인식.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옥희, 송나리, 박성은, 정유리 (2021). 포토보이스를 통해 영유아교사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41(6), 49-82. <https://doi.org/10.18023/Kjece.2021.41.6.003>
- 이재희, 라미영, 방실, Karen Elizabeth Canape (2012). 학교사회복지사들이 표현하는 “일과 나” : 포토보이스 방법론 적용. **학교사회복지**, 23, 257-280.
- 이정연, 김수영 (2020). 2019 개정누리과정에 근거한 자유놀이가 유아의 창의성 및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효과. **상담심리교육복지**, 7(4), 241-261. <https://doi.org/10.20496/cpew.2020.7.4.241>
- 이하정 (2021). 포토보이스를 통해 나타난 예비유아교사의 어린 시절 놀이경험의 인식 탐색. **인문사회**21, 12(2), 2687-2700. <https://doi.org/10.22143/HSS21.12.2.189>
- 이현주 (2015).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 : 포토 보이스 방법론을 적용하여. **한국위기관리논집**, 11(4), 247-272.
- 임부연, 오정희, 최남정 (2008). 비구조적인 자유놀이 시간에 유아들이 보여주는 ‘진짜 재미있는 놀이’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유아교육연구**, 28(1), 185-209.
- 임수진, 김윤희, 박형신, 이승하, 장경은, 탁정화 (2019). 놀이하는 유아 호모루덴스를 향하여. 양서원.
- 장승희, 손원경 (2018). 포토보이스를 통해 나타난 유아교사의 놀이 개념과 의미.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12), 431-457. <https://doi.org/10.22251/jlcci.2018.18.12.431>
- Baker, T. A., & Wang, C. C. (2006). Photovoice: Use of a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method to explore the chronic pain experience in older adults. *Qualitative Health Research*, 16(10), 1405-1413.
- David Cordova Jr. (2010). *“Accepting and embracing my disability”: Describing the life experiences of Latinas/os with physical disabilities who have abused substances* (Publication No. 3417661) [Doctoral dissertation, Michigan State University]. ProQuest Dissertations & Theses Global.
- Frost, J. L., Wortham, S. C., & Reifel, R. S. (2001). *Play and child development*. Merrill/Prentice-Hall.
- Johnson, J., Christie, J., & F. Wardle (2006). 『놀이, 발달, 유아교육』(손원경·안효진·유연옥·이진희 옮김). 아카데미프레스. (원판 2004)
- Latz, A., & Mulvihill, T. M. (2017). *Photovoice research in education and beyond: A practical guide from theory to exhibition*. Routledge.
- Latz, O. a. (2018). **포토보이스 연구방법: 참여적 행동 연구** (김동렬 옮김). 학지사. (원판 2017).
- Palibroda, B., Krieg, B., Murdock, L., & Havelock, J. (2009). *A practical guide to photovoice: sharing pictures, telling stories and changing communities*. Prairie Women’s Health Centre of Excellence.
- Polkinghorne, D. (1989).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s. In R. S. Valle & Halling (Eds.),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perspectives in psychology*. (pp. 41-60). Plenum.
- Van Manen, M. (1990).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 Human science for an action sensitive pedagogy*. London, **체험연구 : 해석학적 현상학의 인간과학 연구방법론** (신경림, 안규남 옮김). 동녘. (원판 1994).

- Wang, C. C. (1999). Photovoice: A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strategy applied to women's health. *Journal of Women's health, 8*(2), 185-192. <https://doi.org/10.1089/jwh.1999.8.185>
- Wang, C. C. (2006). Youth participation in photovoice as a strategy for community change. *Journal of Community Practice, 14*(1-2), 147-161. https://doi.org/10.1300/J125v14n01_09
- Wang, C. C., & Burris, M. A. (1997). Photovoice: concept, methodology, and use for participatory needs assessment. *Health Education and Behavior, 24*(3), 369-387. <https://doi.org/10.1177/109019819702400309>

논문투고: 23.03.03.

수정원고접수: 23.03.23.

최종게재결정: 23.03.24.